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 01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 동국대의료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남한산성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4월 30일 동국대학교의료원을 방문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학명 스님은 “약사여래의 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일산 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하며 힘을 보태기 위해 보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은사 철웅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에 5억여 원의 정재를 기부하는 등 자비 나눔을 계속하고 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큰스님의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교직원이 의술로써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불사는 대표적인 나눔 포교 도량으로 창건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지급, 지역복지사업, 군 포교활동, 구치소 교화활동 등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보시행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02 문신제거 시술 지원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도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문신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특별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문신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위축감이 크고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후 사회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원은 이들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1명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약 100여 회의 문신제거 시술을 지원했으며, 문신제거 시술을 위한 비용은 매달 병원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으로 사용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문신제거 시술을 받은 학생들은 외관상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 앞에서도 당당해 질 수 있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 지소와 손을 잡고 2011년부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문신제거 시술지원으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03 영상의학과 윤금섭 방사선사, 포스터부문 우수논문상 수상

영상의학과 CT실에 근무하는 윤금섭 방사선사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5년 전국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여 5월 교·직원 조회에서 수여받았다.

이날 학술대회는 포스터 전시, 초청특강, 주제발표, 전문교육, 포스터 논문 등이 발표되었고, 윤금섭 방사선사는 '흉부 CT 검사 시 Rotation Time 변화에 따른 선량 및 영상 비교 평가'의 논문으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윤금섭 방사선사는 “호흡이 어려운 환우들은 흉부 CT 검사 시 장기가 움직여 최상의 영상을 얻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한 최고의 영상을 얻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방사선 선량의 증가 없이 일정한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04 응급처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장례식장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4월 22일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AED(자동제세동기)를 도입하고 직원교육을 시행했다.

본 장비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립스’사의 최신 의료장비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다. 급성 심정지 상황에 직면한 환자에게 전기적 충격을 가하여 심장의 기능을 살리고, 응급상황에서 심전도 분석과 전기충격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또한, 충전과 충격 알림을 8초 내의 빠른 시간에 진행하고 음성안내 기능을 내장하는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장례식장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05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식과 선물전달

영양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소아 환우들에게 작은 정성이 담긴 이벤트식을 제공했다.

이 날 점심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함박스테이크 정식과 달콤한 와플, 그리고 귀여운 요술풀선이 함께 하여 소아 환우들이 더욱 맛있게 식사를 했다. 특히, ‘꼬마버스 타요’ 모양의 배선카로 식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영양팀은 병원에서 보내는 어린이날이지만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하고, 소아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4월 3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어린이청소년팀의 후원으로 지도법사 증휘 스님과 함께 입원 중인 소아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동심을 풍요롭게 하는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 5월 친절 간호사



##### SICU 이유라 간호사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문의사항이 있을 때 상냥하게 잘 알려주고 무엇보다 잘 웃는 얼굴이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 수술실 신나리 간호사

언제나 상냥한 모습으로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가는 행동을 하는 전문가다운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 알 리 미

##### 무료영화 상영

상영작 : 국제시장 | 일시 :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5층 대강당

#####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 간호선 무차대회 의료지원

일시 : 5월 16일(토)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광장